

##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영국 가족정책의 형성 과정 - 가족수당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양진운, 이정남, 이발희, 김영자(한림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관점을 통해, 191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가족수당의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영국 가족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 모성수당이 최초로 논의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0년대 후반이었다. 모성수당의 논의는 Eleanor Rathbone이 주도하는 영국의 신페미니스트들 new feminist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들은 어머니를 노동자와 동일시했으며, 여성들이 아동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강조한 것은 수당이 남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에게 직접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국가 정책으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성수당은 페미니스트내의 분열, 남성노동자위주의 노동조합운동,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소극적 태도 등과 같은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취될 수 없었다.

1920년대 이후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경제적 부양을 위한 국가계획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모성수당 논의는 1920년대 가족수당, 1930년대 아동수당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1920년대의 가족수당 논의는 남성임금체계를 보호하려는 영국 노동조합의 합의를 얻지 못했다. 이 시기에 가족정책은 단지 남성생계부양자 위주의 임금 체계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존재했다. 여성 시민권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고, 아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남편에게 있었으며, 남편이 부재할 때에만 국가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30년대는 경제 불황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였다. 아동 부양육구를 위해 임금과 복지제도를 조정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수당의 장점을 주장하기 위해 각각의 정당들과 손을 잡았고, 아동수당 정책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

1940년대 Beveridge 보고서가 실현되면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1945년 가족수당이 남편을 통해서가 아닌 어머니에게 직접 부여되도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여전히 남성이 가장 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지위는 남성이 가장에게 포함되었다. 어머니에게 직접 부여되는 가족수당은 노동과 사회보험에서 제

한된 여성들에 대한 미약한 보상이었다.

이처럼 영국의 가족정책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정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